



아담 핸들러 Adam Handler

아담 핸들러는 천진난만한 고스트와 소녀 이미지를 통한 따뜻한 공감과 소통의 언어를 선보여왔다. 핸들러는 순수한 형태와 질감이 마치 어린아이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화면 속 유령과 소녀 형상을 통해 유한한 삶의 허무를 극복하고 희로애락을 위트있게 표현한다. 뉴욕 태생의 작가는 현재 미국을 기반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유망한 동시대 작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자유로움과 순수함, 원시성의 표출은 핸들러 회화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작가 스스로의 순수하고 직관적인 표현의 발로이며, 그가 만든 꿈같은 회화적 장면에서는 작가 개인의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본연의 불안과 상실 같은 삶의 문제들이 유쾌한 삶의 에너지로 치환된다. 살펴보면, 작가는 지금까지 13여년의 오랜 기간 동안 사랑스러운 '고스트'와 악동 '소녀'가 등장하는 초상 작업을 지속해왔다. 박쥐를 비롯하여 초기의 어두운 느낌의 모노크롬 드로잉과 함께 이들은 한때 작가가 빠져들었던 불가피한 삶에서의 상실감을 오히려 친근하게 상징화하고 편안하게 치유하는 방식이었다. 이어서 UFO의 '납치' 시리즈와 더불어 물고기와 뱀, 여우 등 조력자의 등장과 함께 점차 툴립과 별이 있는 정원 혹은 우주공간과 같은 만화경의 세계가 펼쳐지는 서사적인 작업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동화적인 이미지의 이면에는 인간의 실존적 삶에 대한 각성과 이를 예찬하는 작가의 철학이 놓여있다. 순수미술의 형식과 대중문화의 수많은 레퍼런스를 버무려내어 특유의 캐릭터적 요소와 회화적 붓터치가 조화를 이루는 독자적 조형 어법을 구축한 핸들러의 작업은 오늘날 네오-팝아트의 다양한 양식 속에서 돌아볼 수 있다.

사전 밑그림 없이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제작 방식의 작업은 그에게 있어 수행의 과정이 아닌 놀이의 일종으로, 여기에는 목조 공예가인 할아버지의 작업실에서 각종 예술작품과 서적에 둘러싸여 지냈던 예술적 환경, 늘 곁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던 할머니와의 즐거운 놀이로 대표되는 유년 시절의 감수성이 작가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작업은 오늘날 넘쳐나는 히어로물의 장면들을 참조한 것이 많다. 슈퍼맨, 배트맨을 비롯하여 한때 유행이었던 일본 코믹물의 세일러문과 포켓몬까지, 어린 시절의 추억은 화면의 스토리 구성으로 나타나고 특히 최근 새롭게 선보이는 '모노크로매틱 컬러밴드회화(Monochromatic Color Band Painting)'와 함께 '배틀그라운드' 시리즈는 악을 이기는 그들의 초인적인 능력을 생각한다. 영웅적 면모는 작가의 삶을 지지해주는 개인적 기억과 감정의 표현으로, 이제 성인이 된 그에게 슈퍼히어로는 다름 아닌 자신을 늘 응원하고 영감을 주는 할머니 님다, 아내 등 가족이다. 이렇게 작가는 삶의 순간들을 탐구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환희의 순간, 소중한 사람들과의 사랑과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시각화하면서 상상력이 풍부한 다양한 작업을 하고있다. 즉흥적이고 때로 장난스럽기도 한 그의 이미지 속에는 철학적이자 재치 넘치는 표현이 가득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반전 매력이다. 핸들러의 작업은 내적으로는 자전적 경험, 외적으로는 대중문화 혹은 서브컬처에 대한 관심이 투영되어 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어린아이가 숨어있다. 키스 해링은 인간존재의 경험이 아기라고 믿었고, 피카소는 중국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고 했다. 핸들러의 고스트와 소녀는 곧 놀이이자 늘 새로운 시작과 창조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창조적 주체이자 작가로서의 정체성이며 또한 유한한 삶의 고단함을 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과 사랑의 표현일 것이다. 어딘지 모를 어두움과 귀여움의 양면성을 통해 어른들의 잊어버린 과거를 투영하는 동시에 우리 내면에 감춰진 두려움과 반항심, 누구나 겪는 인생의 유한함을 드러내는 상징적 대상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핸들러의 그림은 특별해 보인다. -Gallery JJ-

아담 핸들러 (Adam Handler): 1986년 뉴욕 퀸즈 출생. 이탈리아에서 라이프 드로잉, 뉴욕의 SUNY 퍼체이스 대학교(Purchas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미술사 전공 학위를 취득했다. <For You>(마드리드 빌라잔갤러리 2023), <Love Land>(파리 콜갤러리 2022), <A Little Lost>(몬트리올 갤러리COA 2022), <Ghost>(런던 디스타시아트 2021), <Sweet Stranger>(베이징 42아트스페이스 2021) 등 세계를 무대로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원초적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순수한 감성의 작품 이면에는 삶에 관한 철학적이고 재치 넘치는 표현이 가득하다. Art New York, Art Taipei 및 Armory Fair를 비롯한 주요 아트페어와 세계 3대 미술품 경매사 Sotheby's, Christie's, Phillips에서 소개되는 등 작가는 유망한 동시대 작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alleryJJ seoul

Adam Handler

Visually akin to children's drawings, Handler's paintings exude freedom, innocence, and primitiveness, making them hallmark features of his work. These painterly scenes he creates manifest his guileless and intuitive voice, effectively supplanting the inherent anxieties and losses rooted in personal stories with cheerful energy. Born in New York, he currently practices across the global art scene, with a notable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sia, firmly establishing himself as one of the most prolific contemporary artists.

[Biography]

Born 1986 in New York

BA in Art History: State University at Purchase, NY, 2008

Selected Solo Exhibitions (since 2013)

- 2023 *Girl & The Ghost*, Gallery JJ, Seoul, South Korea
For You, Villazan Gallery, Madrid, Spain
- 2022 *Ghost Poems*, Guy Hepner Gallery, NYC
Love Land, Cohle Gallery, Paris, France
Hanami Party, Helwaser Gallery, NYC
Spanish Hearts, Granada Gallery, Madrid, Spain
Parallel Universe, Caelis Galeria, Shanghai, China
A Little Lost, Galerie COA, Montreal, Canada
- 2021 *Ghost*, D'Stassi Art, London, UK
Love at First Sight, Trinity Gallery, Seoul, South Korea
Sweet Stranger, 42 Art Space, Beijing, China
Twinkling Unknowns, Cohle Gallery, Paris, France
- 2019 *Under Softer Summer Skies*, Artual Gallery, Beirut, Lebanon
Adam Handler, Rarity Gallery, Mykonos, Greece
Angels Around Here, Ober Gallery, Kent, CT
- 2018 *Things we dream about*, Lane Contemporary, Katonah, NY
Love Sick, Brega Artist Space, Seoul, Korea
- 2017 *Rebel*, Rebel, Madelyn Jordon Fine Art, Scarsdale, NY
Sweet Thing, Maison 10, NYC
- 2016 *Bat and Ghost paintings*, Children's Museum of Westchester, Rye, NY
Adam Handler: Flowers, Gardens and Little Things, Bendheim Gallery, Greenwich, CT
- 2015 *All Saints Here*, Fred Torres Gallery, NYC
- 2014 *American Children*, Fred Torres Gallery, NYC



Ghost Abduction in 1994, 2022, Oil stick, acrylic and pencil on canvas, 40x30in, 101.6 x 76.2cm